



KB국민은행, 김앤장과 상속 금융 상호협력 MOU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왼쪽)과 이윤석 KB국민은행 WM추진본부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카카오, 비수도권 청소년 AI 인재 육성 '앞장'

카카오가 비수도권 청소년의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카카오 AI 루키 캠프'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카카오 정신이 대표(왼쪽 세번째)가 '카카오 AI 루키캠프' 2기 수상팀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



한유원, 열무김치 250kg 담가 취약계층에 나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서울 양천구 신월5동 주민센터에서 열무김치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했다. 18일 한유원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취약계층에 전달할 열무김치 250kg를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특히 신입직원들과 멘토 직원까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김치는 신월5동의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한유원



알에프바이오, '유스필' 앞세워 동남아 시장 공략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알에프바이오가 히알루론산 필러 '유스필'을 앞세워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알에프바이오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AMSC 말레이시아 2026'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알에프바이오

노사발전재단

퇴직 중장년, '멘탈 코치' 변신

퇴직한 중장년층이 청년 대학생들의 학업 원주와 진로 설계를 돕는 '멘탈 코치'로 나선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사)한국고치협회와 함께 폴리텍 재학생 대상 '중장년 멘탈코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학력 및 숙련된 현장 경험을 보유한 2차 베이비부머 등 퇴직 중장년에게 전문 상담사라는 새로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과 취업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전자, 클림트·베르메르 명작 43점 TV로 만난다

빈 미술사 박물관과 손잡고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선보

삼성전자가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하며 글로벌 미술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삼성 TV를 통해 세계적인 미술관의 작품을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예술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빈 미술사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43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표 작품으로는 ▲피터르 브뤼헐 1세의 '바벨탑'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회화의 예술' ▲구스타프 클림트의 '누다 베리타스'가 있다.

이 밖에도 카날레토와 베르나르도 벨로토가 베네치아와 빈을 담은 난상 정적인 풍경화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여름'을 비롯해 루벤스, 벨라스케스,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카라바조, 티치아노, 렘브란트, 라파엘로 등 거장들의 명작을 만나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미술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화질 작품에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디스플레이 기술인 무반사 기

술을 결합해 완벽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 TV 이용자들은 화면 표면에 특수 코팅으로 빛을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무반사 기술을 통해 밝은 햇빛이 들어오거나 조명을 켜 환경에서도 빛 반사 없이 선명한 화질

기업들, 광복절 '815런' 함께 달렸다

한국엔컴퍼니·동국제강·GS칼텍스 마라톤 후원으로 유공자 후손 지원

국내 기업들이 광복절을 맞아 진행된 '2026 815런'에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서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815런은 나라의 빛을 찾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개최되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이다.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락한 보급 자리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엔컴퍼니 그룹과 동국제강그룹 등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 815런'의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815런을 후원하고 있다. 그룹 통합 ESG 브랜드인 '드라이빙 포워드 투게더' 아래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창업정신인 '철강보국'이 캠페인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2024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후원금 815만원과 임직



'2026 815런'에 참여한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단체사진.

원 및 가족 230명의 참가비 1245만원을 합쳐 총 2060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GS칼텍스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총 300명도 직접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GS칼텍스는

2019년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윤봉길·한용운·백범 김구·윤동주·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5인의 실제 필체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독립서체'를 개발하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진공, 소상공인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자살 예방 교육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정신 건강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안전망 구축 활동에 본격 나선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대 남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과 생명존중희망재단은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간 1대1 매칭을 기존 35개에서 61개(71.4% ↑)로 대폭 확대했다. 양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지역 밀착형 생명지킴이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공단 지역센터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인 'PHQ-9'을 비치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중앙아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 협회(CABA), 오픈헬스케어와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중기 이사장을 비롯한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들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방문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카자흐 건강검진시장 진출

알마티 코리안 메디컬센터 역량 지원

씨젠의료재단이 중앙아시아 헬스케어 시장에서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중앙아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 협회(CABA), 오픈헬스케어와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천중기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장세진 대표병원리원장, 이민철 오픈헬스케어 대표와 카자흐스탄 측 알렉세이 초이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관, 카말잔 나디로프 CABA 회장, 다르한 투를리베코프 대통령실 사회경제정책부 컨설턴트,

에르갈리 압두라이모프 카즈바이오파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오픈헬스케어가 운영하는 알마티 코리안 메디컬센터(KMCA)를 현지 공식 건강검진센터로 키우는 데 씨젠의료재단이 기술 지원을 맡는 구조다. 진단검사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이식하고 의료인력 교육까지 지원해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검진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카자흐스탄 방문단은 이날 씨젠의료재단의 감염검사, 분자진단검사, 병리검사 등 실제 검사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씨젠의료재단은 2023년 알마티시와 첫 협력 논의를 시작한 이후 해외 진출을 위한 자회사 오픈헬스케어를 설립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